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 활동 보도

2015년 9월 7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 강북구의회 예결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일반회계 4천439억 7천333만원, 특별회계 140억 9천561만원·8일 본회의서 확정



김명숙의원



이용균 의원



이영심 의원



이백균의원



이정식의원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명숙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용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8월 28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진 1차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용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으로는 이영심, 이백균, 이정식, 이용균, 김명숙 의

원 총 5명의 의원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2015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사로 국내외 위기 상황으로 많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강북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에 무게를 뒀다”며 “한정된 예산인 만큼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 누구나가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용균 부위원장은 “예산안 심시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해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천 439억 7천333만원이며, 특별회계 140억 9천561만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5.04%인 219억 9천605만원 증가한 수치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현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

서울포스트 3면

##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김명숙, 부위원장에 이용균, 위원에는 이영심, 이백균, 이정식 각각 선임



김명숙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



이영심 위원



이백균 위원



이정식 위원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8월 28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진 1차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용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영심, 이백균, 이정식, 이용균, 김명숙 의원으로 총 5

명의 의원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2015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사로 국내외 위기 상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강북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정된 예산인 만큼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여 가장 시급

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 누구나가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균 부위원장은 “예산안 심시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천439억 7천333만원이며, 특별회계 140억 9천561만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5.04%인 219억 9천605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9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명숙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



이영심 의원



이백균 의원



이정식 의원

##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 김명숙 위원장·이용균 부위원장 등 5명의원 선임돼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8월 28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진 1차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용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명숙 위원장과 이용균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영심·이백균·이정식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8월28일부터 9월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2015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숙 위원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사로 국내외 위기 상황으로 많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강북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정된 예산인 만큼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 누구나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균 부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천 439억 7천233만원이며, 특별회계 140억 9천 561만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5.04%인 219억 9천605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